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66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1월 24일 (음력 12월 6일) 수요일

"민생문제 만든 책임없다"

盧대통령 신년 특별연설…"다음 정부에 숙제 안 남길 것"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이 시대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를 뒤로 넘기지 않고,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TV 생방송을 통해 진행된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 신년연설을 통해 "저의 관심은 성공한 대통령이나 역사의 평가가 아니다. '성공한 대통령'에 매달리지 않고 남은 기간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과제이고, 참여정부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역사를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행복과 영광을 가져다준 지도자는 단지 경제만 하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거시적 관점에서 철학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역사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한 지도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민생문제에 언급,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고, 거듭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민생문제를 만든 책임은 없고, 참여정부의 민생문제는 문민정부 시절에 생긴 것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스스로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민생 파탄'이라는 말까지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데는 승복할 수 없다"며 "적반하장, 후안무치라고 대답하고 싶다"고 밝혀 문민정부 시절 집권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 재정계획인 '비전 2030'을 거론하며 "장차 부족한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국채로 조달할 것인지, 보험료로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정부에서는 시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 문제는 앞으로 20년 또는 30년간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활발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작은 정부론 주장과 관련, 노 대통령은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에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한국에는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인혁당 무죄

사형수 8명 32년만에 누명벗어

32년 만에 법정에 다시 오른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1975년 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이 선고돼 숨진 고 우홍선씨 등 8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1975년 긴급조치 1호 위반 등의 혐의로 사형이 집행돼 숨진 우홍선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4면〉

재판부는 각 피고인들이 인혁당 재건을 위한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비롯해 여정남씨가 민청학련을 배후 조종해 내란을 예비·음모한 혐의, 송상진·하재완씨가 북한방송을 청취해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대책위는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며 사법적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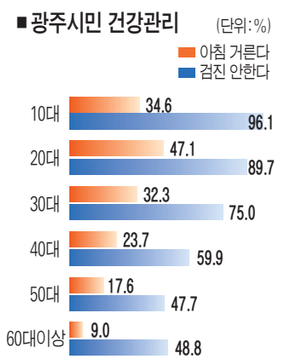
천주교 부제 서품 23일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광주대교구 2007년 부제서품식에서 10명의 부제서품자들이 최장무(왼쪽 빨간모자) 대주교 앞에 '가장 낮은 자로서의 모습'을 뜻하는 부복(俯伏) 의식을 취하고 있다. 6명의 새 신부가 배출될 사제서품식은 같은 장소에서 24일 오전 열린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20대 2명중 1명

"아침 거른다"

■2006년 사회통계조사

■광주시민 건강관리 (단위:%)



광주·전남지역 20대 2명 가운데 1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장래 직업으로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광주·전남의 음주·흡연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지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1년에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광주·전남

지역민 70% "운동 않고 정기검진도 안받아"

청소년 58% 공무원 선호…음주·흡연 줄어

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공무원이 단연 1위를 차지했다. 광주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이 44.1%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15.1%, 공기업 13.5%, 전문직기업 12.6% 등의 순이었다.

아침식사를 거르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민 가운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28.5%에 달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절반 가까운 47.1%가 아침식사를 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습관적이거나 번거로워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음주·흡연 인구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20세 이상 전남도민 가운데 담배를 피우는 비율은 23.6%로 3년 전인 지난 2003년보다 1.3%P 줄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바다가 살아난다

'고데구리' 사라지면서 어획량 30~60% 증가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싹쓸이 어업으로 연근해 어족자원을 황폐화시켰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일명 고데구리)이 자취를 감추면서 전남 연근해 바다가 살아나고 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04년 말 전남 동부지역에서 조업하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약 1천512척이었으나 지난해 말 현재 70%인 1천59척이 감척됐고 나머지 453척은 합법 어업으로 전환했다. 160척의 고데구리 어선이 조업했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서는 지난해까지 60척이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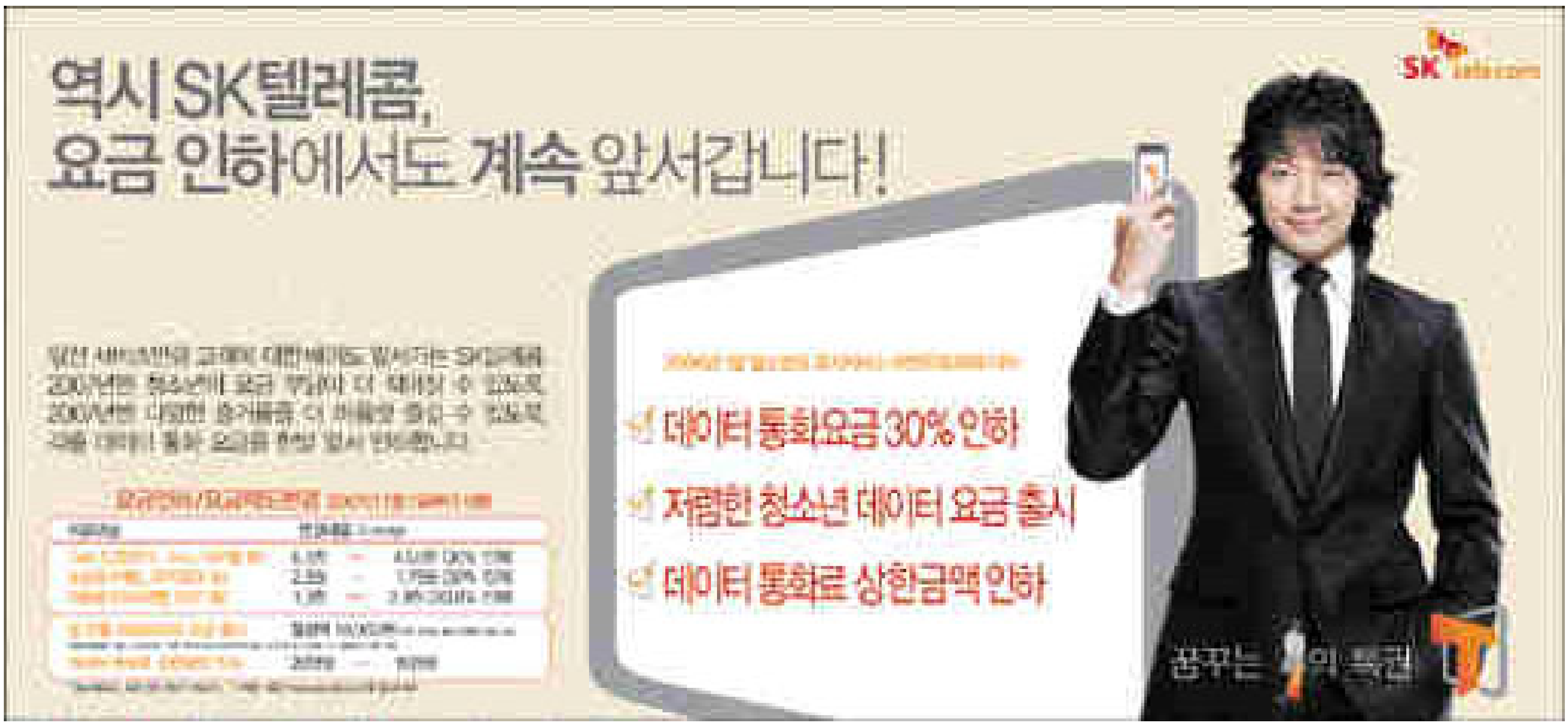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사라지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의 어획량은 2003년 8만9천541t에서 2005년 9만1천805t, 지난해 9만4천322t으로 증가했다.

여수수협 위판량도 2004년 6만9천312t(81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만7천595t(1천126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일부 연안 어업의 경우 어획고가 30~60%까지 늘어났다. 통발을 사용해 문어나 꽃게를 잡는 연안통발어업 어획고는 지난 2003년 827t에서 지난해 2006년도 1천911t으로 대폭 늘었고, 새우조망어업은 2003년 88t에서 2006년 440t으로 4배 이상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 서부지역 연근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2005년 2만1천826t이었던 목포수협 어획량은 지난해 3만3천163t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병어나 갈치와 같은 고급 어종이 많이 잡히면서 어민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2천400t에 불과했던 갈치 어획고는 지난해 3천807t으로 50% 증가했으며 병어도 지난해 1천401t이 잡혔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2004년 불법 어업 집중 단속과 2005년이후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t급 유자망어선 선주 김모(47·목포시 동명동)씨는 "생선 씨를 말렸던 고데구리 어선이 감소하고 불법어업 단속으로 어장 먹이사슬이 제대로 형성되면서 출어비도 못 건졌던 적자 출어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목포=이상선기자 sslee@